

주요국 ESG 규제 동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이승준

2023.8.25.



목 차

- 1. 논의 배경
- 2. 탄소중립 금융규제
- 3. 탄소중립 산업정책
- 4. 시사점



- 1. 기후위기의 심화와 정책 전환
- 2.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1. 기후위기의 심화와 정책 전환

✓ 온난화(Warming) ¬〉비등화(Boiling)

- 2023년 7월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 (WMO)
- 해수면 온도도 엘니뇨 현상과 함께 신기록 작성 예상
- UN 사무총장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 IPPC 6차 종합보고서(2023.3)

- 이론의 여지 없이(Unequivocally) 인류활동의 결과물인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화
- 2050 탄소중립(1.5°C 목표)의 절박성: 이미 1.1°C 상승
- 각종 자연재해와 이상기온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인류와 자연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2015 파리협정 -> 국가별 정책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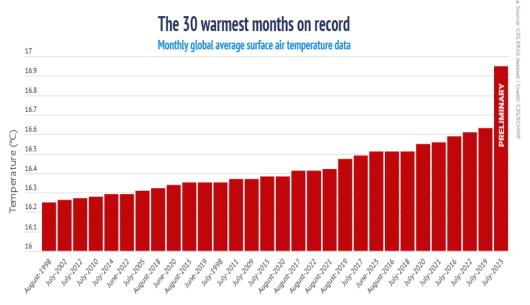
- 현재 133개 국가에서 탄소중립 선언
- 배출량의 88%, GDP의 92%, 인구의 85% 차지
- 탄소중립 경제전환을 위한 정책

<그림 1> 글로벌 이상기온 현상









자료: WMO, EU(2023.7)

2.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EU Action Plan (2018.3)

-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을 위해 자본 흐름을 지속가능 투자로 유도
 - Action 1 EU 지속가능 분류체계(Taxonomy)
 - Action 2 녹색금융상품 기준제정
 - Action 3 지속가능 인프라투자
 - Action 4 금융상품판매에 지속가능성 선호 반영
 - Action 5 지속가능 벤치마크 개발
- 2.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파괴 및 사회적 이슈로 인한 금융 리스크 관리
 - Action 6 신용평가와 시장분석에 지속가능성 반영
 - Action 7 기관투자가와 자산운용사 책임에 지속가능성 명시
 - Action 8 재무건전성 요건에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반영
- 3. 금융 및 경제 활동의 투명성과 장기성 촉진
 - Action 9 지속가능 관련 **공시 강화(SFDR, CSRD)**
 - Action 10 지속가능 기업지배구조 및 장기적 의사결정



탄소중립 금융규제

- 1. 분류체계 Taxonomy
- 2. 공시 Disclosure

1. 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

1) 목적

✓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민간 및 공공 자금이 녹색사업과 녹색기술로 유입되도록 지원하고 그린워싱을 예방하는 효과

2) 경과

- ✓ 2018.6 ~ 2020.7 지속가능 금융 전문가 그룹(Technical Expert Group) 활동
- ✓ 2020.6.22 EU Official Journal에 공시, 2020.7.12 발효
- ✓ 2021.12.9 EU 집행위원회 위임입법(기후) 발표, 2022년부터 적용
- ✓ 2022.7.15 EU 집행위원회 보충위임입법(기후) 발표, 2023년부터 적용
 - 배출기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정에 필요한 친 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
 - 7월 의회에서 원자력, 천연가스 포함 표결 통과

1. 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

3) 6가지 환경 목표

- ✓ 기후변화 완화
- ✓ 물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보호
- ✓ 오염 방지 및 제어

- ✓ 기후 변화 적응
- ✓ 순환 경제로의 전환
-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복원

4) 요건

- ✓ 경제활동은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인정
- ✓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 ✓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 준수 (Minimum Social Safeguards)
- ✓ 경제활동이 환경 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나머지 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양적 및 질적 임계값 또는 조건인 TSC(Technical Screening Criteria) 만족

1. 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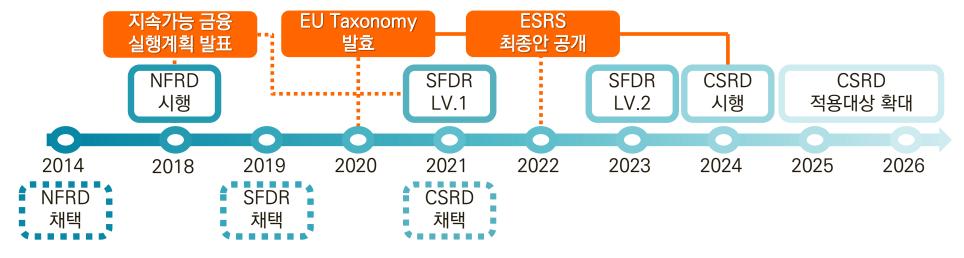
5) 적용 대상

✓ 지속가능 공시의무를 가진 기업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RDR)을 통하여 분류체 계규정에 따라 친환경 경제활동 비중을 공시

6) 적용 일정

- ✓ 2020.6.22 EU Official Journal에 공시, 2020.7.12 발효
- ✓ 2021.4.21 EU 집행위원회 위임입법 발표, 2021.6.4 발효
- ✓ 2022년 1월 EU 녹색분류체계 후속법안 초안 발표 및 전문가 의견수렴
- ✓ 2022년 2월 EU 녹색분류체계 후속법안 발표, 7월 의회에서 원자력, 천연가스 포함 표결 통과
 - 배출기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정에 필요한 친 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

1) 개관



제도	시행	적용대상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	2018	직원 500명 이상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mark>기업</mark>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2024	NFRD 적용 <mark>기업</mark> (2026년 까지 대기업 상장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예정)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2021	금융기관(EU 역내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11171 - 유연구원

2)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SFDR의 목적 - 지속가능한 투자로의 방향 전환과 투명성 제고

SFDR 공시 의무

기업 단위(Entity Level)

자산운용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18개 지표



금융상품 단위(Product Level)

역내 금융상품이 사회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

〈SFDR의 금융상품 분류 체계〉

제 6조

제 8조, 9조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 상품 제 8조 라이트 그린 지속가능성 특성을 촉진하지만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 제9조 다크 그린 지속가능한 투자를 주요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

공시 내용 강도

| | (i२i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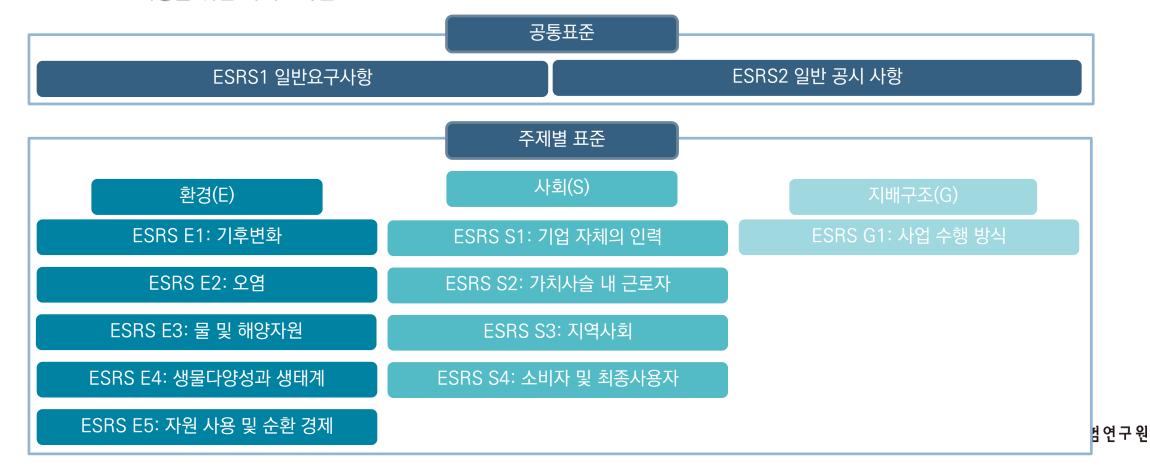
3)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 v.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NFRD	CSRD	
채택	2014	2021	
시행	2018-2023	2024 (2026년까지 적용기업 확대)	
적용 기업 수	약 11,700개 기업	약 49,700개 기업	
보고요건 범위	 환경보호 사회책임 및 종업원 대우 인권 보호 부패 및 뇌물 방지 이사회 다양성 	 NFRD의 보고요건 범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중 중요성) ESG 장기 목표 및 정책에 대한 정보 사회, 인간,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TCFD에 따른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을 위한 기후 시나리오 SFDR 및 EU 택소노미 규정을 준수하여 공시 	
3자 검증 여부	3자 검증 의무 X	3자 검증 필요	
보고 위치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혹은 연간 경영보고서(management report) 내	연간 경영보고서 내	
포맷	온라인 PDF 파일	전자 포맷(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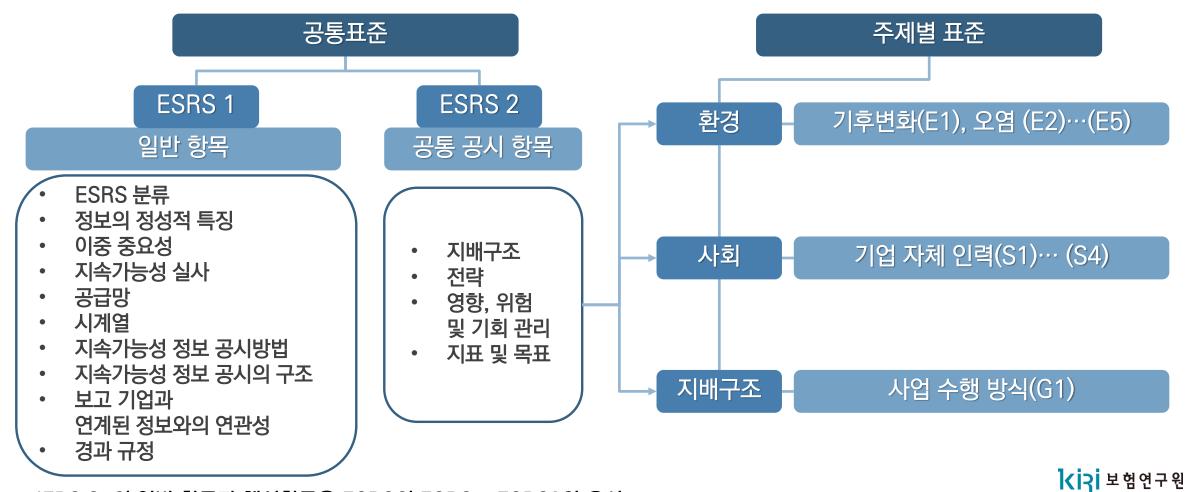
자료: EU PARLIAMENT(2014, 2022)

4)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 (ESRS)

역내 CSRD 적용기업은 해당 보고표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를 이행하여야 함 ESRS = CSRD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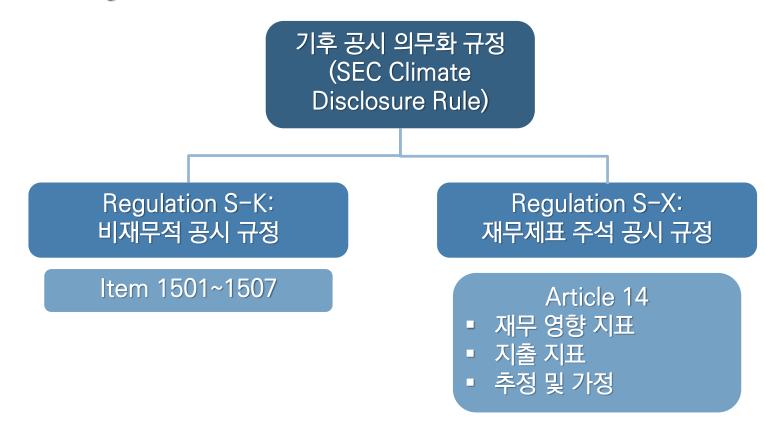
4)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 (ESRS)



• IFRS S1의 일반 항목과 핵심항목은 ESRS의 ESRS1, ESRS2와 유사

참고: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

1) Regulation S-K & Regulation S-X 내 규칙 신설(2022.3)



^{*}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은 기후를 포함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만 SEC는 '기후'에 대한 공시만을 요구



탄소중립 산업정책

- 1. 산업정책 개요
- 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3. EU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ial Act)

1. 산업정책 개요

- ✓ 기후위기 심화로 정책대응 과정에서 환경 관련 신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자 적극적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 관련 글로벌시장이 6,500억 달러(약 870 조원)로 현재보다 3배 이상 성장하고 고용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23),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 ✓ 친환경 탄소중립 경제 전환은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위기이자 기회
 -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통한 신기술 지원 및 신산업 육성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하여 해외의존을 줄여 공급망 안정성 확보

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1) 목적

✓ 청정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재정적자 감축, 공공보건 지원 및 의료비 절감

2) 탄소중립 관련 주요 내용

- ✔ 세제 혜택, 대출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에너지와 공급망 안보를 강화
 - 주거 부문의 녹색 전환 촉진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 치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지원
 - 특히,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 및 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로 집중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

2. EU 탄소중립산업법

1) 목적

- ✓ 청정 신기술 혁신 촉진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을 추진
 - 예측가능하고 단순한 규제환경

■ 녹색금융 재원조달 속도 향상

■ 녹색 전환과정의 직업기술 강화

- 공급망 관련 공정경쟁과 자유무역
- ✓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관련 상품의 EU 내 제조를 촉진하면서 에너지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탄소중립산업법』도입 추진

2) 주요 내용

- ✓ 청정 신기술 혁신 촉진, 관련 산업 지원 및 수요 확대
 -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신기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고, 'One-stop-shop' 개념의 행정 창구 단일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기술의 시장진입을 지원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태양광, 풍력터빈, 히트펌프, 배터리, 전기분해장치 등 8대 탄소중립기술 그룹을 선정하고 이들의 EU 역내 제조비율 목표를 연간 수요의 40% 이상으로 확대



- 1. 탄소중립 금융규제
- 2. 탄소중립 산업정책

1. 탄소중립 금융규제

-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발표(2021/12/30):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민간 및 공공 자금이 녹색사업과 녹색기술로 유입되도록 지원하고 그린워싱을 예방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경제구축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022/12/27)
 - ESG 공시제도 정비: 글로벌 기준 및 국내 실정을 고려한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와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 상장기업 대상으로 2025년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속가능공시 의무화
 - ESG 투자 활성화: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 개선, ESG 평가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이 던스 마련
 - 이외 중소중견 기업 ESG 경영지원, ESG 정보 인력 지원체계 구축, 공공부문 ESG 경영 투자 선도 등의 내용을 담음
- ✓ 탄소중립 금융제도의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서둘러야 함

2. 산업정책

√ 산업정책

- 우리나라는 EU 및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수출기업을 포함하여 현지의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정부의 적극 적인 산업정책 지원이 요구됨

✓ 보험산업

- 국내 보험산업은 청정 신산업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녹색 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 경제 전환과정에서 지속가능 경영 및 성장의 기회 발굴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 보험인수, 자산운용 등의 사업모형을 활용

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2023/3/21)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 마련
 -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 제시
 -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 (목표 상향)
 -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증가
 -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
 -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

국가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단위: 백만톤CO₂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율)

713 130	нп	2018	2030 목표	
↑ 	구분 부문		기존 NDC('21.10)	수정 NDC(23.3)
배출량합	계	727.6	436.6(40.0%)	436.6(40.0%)
	전환	269.6	149.9(44.4%)	145.9(45.9%)
	산업	260.5	222.6(14.5%)	230.7(11.4%)
	건물	52.1	35.0(32.8%)	35.0(32.8%)
นปีวั	수송	98.1	61.0(37.8%)	61.0(37.8%)
배출	농축수산	24.7	18.0%(27.1%)	18.0%(27.1%)
	폐기물	17.1	9.1(46.8%)	9.1(46.8%)
	수소		7.6	8.4
	탈루 등	5.6	3.9	3.9
	흡수원	(-41.3)	-26.7	-26.7
흡수 ·제거	CCUS*		-10.3	-11.2
* 탄수포집확용저장(국제감축 Carbon Captur	e Utilization & Storac	e) -33.5	-37.5

자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2023)

kiqi 보험연구원

감사합니다.



1. 문제제기(1)

자본시장 / 공급망관리

역 역 • 투자 및 공급망 역 역 실사대응을 위한 이 기초정보

> <mark>공시</mark>된 정보를 통해 확인 : 공시를 위한 체계 (K-ESG 가이드라인)

• <mark>허위공시에 따른 직접적 불이익 발생</mark>: 자본조달실패, 공급망에서 배제 등







SOCIAL

사회

고용평등/고용다양화 인권 노동 테러/억압등



GOVERNANCE

지배구조

이사회 임원 보수 정치후원 기타 지배구조 등

소비시장

- ESG 경영활동의 결과물로서 "제품과 서비스": ESG 경영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침
-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라 ESG 경영활동이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요소로 작용(윤리적 소비 등)
- ESG 경영활동 표시광고로 확인: 기업이미지광고
- 부당한 ESG 경영활동 표시광고에 따른 직접적 제재 부재: 규제 거버넌스 없음

1. 문제제기 (2)

mE.

- 최종 사용자 또는 기업 고객들이 사업자의 ESG 준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모든 솔루션 및 서비스에 걸쳐 ESG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존재

주주/투자자

-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하게 안력
- 사적규제가 공적규제의 중수들을 앞지르는 현상
- 투자 결정은 위한 고려 사항으로 ESG를 포함하는 투자자 증가

가치 사슬 파트너

- 현력사실사 점검의 일화으로 공급업체의 ESG 정책을 평가하는 거대 기업 등장
- ESG에 대용하지 않는 언체는 가치사슬내에서의 파트너신 기회가 감소

경영활동

- 기언의 비전 미션 및 가치에 대한 정의
- ESG의 영향에 대한 경영진 결정 확대
- ESG를 기반한 성장 모델을 마련하며 전사적 차원에서의 적용 검토

커뮤니티 / 언론

- ESG와 관련하여 대중 및 지역사회 등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높은 ESG기준을 검토
- ESG에 대한 커뮤니티나 언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잠재적으로 기업 평판에 영향

직원 / 노조

- 인재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ESG는 인재관리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직원 만족도가 생산성을 높이고 주주의 수익률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다수

규제

- 규제 당국은 TMT 사업자의 ESG관련 지표들에 대해서 정책적 규제 기준으로 활용 가능
- •규제 당국은 더 강력한 이사회의 지배구조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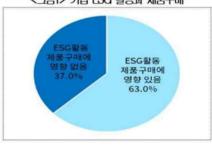
Internal stakeholders
External stakeholders

국민 10명 중 6명 "기업 ESG 활동, 제품 구매에 영향 준다"

입력 2021-05-30 12:00

대한상의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그림1> 기업 ESG 활동과 제품구매



(출처=대한상의)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이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도 실제 영향을 준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ESG 활 동이 제품구매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말에 전체의 63%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70.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 고, '친환경·사회공헌·근로자 우대 등 ESG 우수기업 제품의 경우 경쟁사 동일제품보다 추가 가격을 더 낼 의사가 있 다'고 응답한 비율도 88.3%에 달했다.

이재혁 고려대 교수는 "ESG경영은 투자 유치, 매출 상승 등 긍정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리스 크 관리 측면의 효과도 크다"며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의 발달로 기업의 ESG 관련 이슈가 쉽게 대중들에게 공유될 수 있 는 만큼 ESG 경영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SG 분야 중 기업이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분야로는 '지배구조(G)'(41.3%)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환경(E)'은 35.0%, '사 회(S)'는 23.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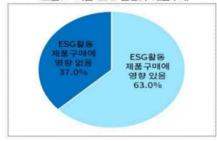
1. 문제제기 (3)

국민 10명 중 6명 "기업 ESG 활동, 제품 구매에 영향 준다"

입력 2021-05-30 12:00

O D ID ID 대한상의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기임1> 기업 ESG 활동과 제품구매



(출처=대한상의)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이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도 실제 영향을 준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ESG 활동이 제품구매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말에 전체의 63%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70.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친환경·사회공헌·근로자 우대 등 ESG 우수기업 제품의 경우 경쟁사 동일제품보다 추가 가격을 더 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8.3%에 달했다.

이재혁 고려대 교수는 "ESG경영은 투자 유치, 매출 상승 등 긍정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리스 크 관리 측면의 효과도 크다"며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의 발달로 기업의 ESG 관련 이슈가 쉽게 대중틀에게 공유될 수 있 는 만큼 ESG 경영에 더 신경을 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SG 분야 중 기업이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분야로는 '지배구조(G)'(41.3%)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환경(E)'은 35.0%, '사회(S)'는 23.7%였다.

분야별로 기업들이 관심을 둬야 할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분야(E)는 '플라스틱 과다사용에 따른 생태계 오염'(36.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기후변화 가속화'(21.0%), '환경호르몬'(19.7%), '미세먼지'(15.0%), '지하수/수돗물 오염'(3.3%), '각종 동식물 멸종'(2.3%), '토지 내 중금속'(1.7%) 등 순이다.

사회분야(S) 이슈로는 '일자리 부족'(31.7%)을 선택한 국민이 가장 많았다. '근로자 인권 및 안전'(31.0%), '소득 양극화'(14.0%), '비정규직 문제'(9.7%), '협력사 관계'(7.0%), '전근대적 기업문화'(6.3%) 등도 있었다.

지배구조(G) 이슈의 경우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36.3%)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회사 자산 사적유용 등 경영진의 도 덕적 해이'(32.7%), '일감 몰아주기'(12.0%), '이사회 및 감사기구 역할 강화'(10.3%), '소액주주 권리 강화'(8.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ESG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민들도 기업의 ESG 활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특히 우리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이제는 기업들은 ESG에 기반을 둔 경영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수조건이 됐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주주 이익과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51.0%에 달했다.

반면 전통적인 기업의 역할이었던 '주주의 이익 극대화'는 9.0%에 그쳤고 '주주가 아닌 사회구성원의 이익' 응답이 39.7%를 차지했다.

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소비자가 신뢰할만한 제품 생산'(32.3%)을 꼽은 국민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일자리 창출'(23.3%), '사회공헌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17.0%), '국가경제 발전 기여'(14.7%), '근로자 복지 향 상'(7.0%), '협력업체와의 상생'(4.0%), '지역사회 발전 기여'(1.7%) 등도 있었다.

윤철민 대한상의 ESG경영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지속성장은 물론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2. ESG 경영활동과 소비자 오인성: 그립워싱을 중심으로







유형 [라벨링 대상]	일반	급용	
A. 제품과 관련된 수준에 국한된, 협의의 그린워싱 [상품/서비스]	(에니) 팜유 기반 '녹색' 연료 (H&M) 컨셔스 컬랙션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행정처분	_	
B. 투자자를 오도하는 선택적 정보공개 [펀드/채권]	(홍콩 공항) 활주로 증설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	(DWS) ESG투자 성과 과장 공시 의혹 (BNY멜론) ESG펀드 관련 규제로 과징금 부과 (골드만삭스) SEC, ESG펀드 운용과정 조사 (데카뱅크) 펀드 임팩트 계산기 (HSBC) 버스정류장 광고 금지 명령	
C.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 조작 [기업/조직]	(토탈에너지스) 정유사 탄소중립 주장 (드랙스) 바이오매스 연소로 탄소중립 주장 (넷제로트래커) 넷제로 목표 선언 기업 조사 (발레) 댐 붕괴 위험 고의적 은폐 혐의 (AEPW) 이니셔티브 그린워싱 논란	(금융기관) 탈석탄/넷제로 선언	

2. ESG 경영활동과 소비자 오인성: 대표적 해외사례 (A 유형)





- (H&M 사례) 의류브랜드 H&M, "의식있는 2019년 콜렉션: 지속가능한 패션 미래를 위한 옷"이라고 광고
-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 **H&M이 사용한 표현에 따라** 소비자들로 하여금 친환경성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조사한 바 그렇지 않음을 확인 : H&M은 50만 유로를 기부하고,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삭제

2. ESG 경영활동과 소비자 오인성 : 대표적 해외사례 (A 유형 추가)



- (코카콜라 폐기물 없는 세상 사례) 코카콜라 , 친환경적인 캠페인 중 "Every Bottle Back(모든 병을 가져와라)", "World without Waste(폐기물 없는 세상)" 용어 사용
- 어스아일랜드연구소, **코카콜라 제품이 광고에 명시된 만큼**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소제기 : 실제 플라스틱 병과 뚜껑은 30%만 재활용 가능

2. ESG 경영활동과 소비자 오인성 : 대표적 해외사례 (B 유형)

Climate Capital HSBC Holdings PLC + Add to myFT

HSBC ads banned for misleading consumers about green credentials

UK watchdog rules series publicising tree planting and net zero emissions plans failed to disclose fossil fuel financing



(홍콩 상하이이 은행 사례)

사회경제적홍콩상하이(HSBC)은행, 영국의 런던 브리스톨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HSBC는 고객들이 넷제로로 전환하도록 1조달러를 제공할 것', '12만톤의 탄소를 가두기 위해 나무 200만 그루를 심을 것" 등의 광고 게시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 중인** HSBC가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광고 금지 처분

2. ESG 경영활동과 소비자 오인성 : 대표적 해외사례 (C 유형)



- (네덜란드 항공 사례) KLM, 자사 홍보용 캠페인중 "Fly Responsibly(책임감 있는 비행)"에서 사용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문구 사용
- 네덜란드 광고심의위원회(SRC), 해당 내용에 대해 허위광고 판정: 항공업계의 "지속가능성"주장에 대한 세계 최초의 소송

2. ESG 경영활동과 소비자 오인성 : 공정거래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2

대기업, 마케팅 수단으로 공정무역 악용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도 이를 반영해 공정무역 제품을 선보인다. 그러나 한 사무처장은 "스타벅스 등에서 쓰는 인증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보면 거래 시점의 가격에 관해 규정한 인증은 없다"라며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유사인증'을 붙여놓고 공정무역이라고 한다"라고 꼬집는다.

그는 "파리바게뜨가 청개구리 마크를 붙여놓고, 친환경적인 재배환경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존중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청개구리 인증 역시 가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공정 무역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느냐가 핵심인데,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건 공정무역 인증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일부 제품만 공정무역 제품으로 사용하거나 실제로는 거의 생산하지 않으면서 공정무역 기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대기업의 마케팅 수단을 '페어 워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페어 워싱' 단계에도 오지 못했다는 것이 한 사무처장의 지적이다. "차라리 페어 워싱이라도 하면 '내년에 몇 %를 더 늘릴 것이냐'와 같은 대화가 가능한데, 유사인증은 '틀렸다'고 지적해야 하니까 공정무역을 실현하기가 더 어렵다"라며 안타까움을 털어놓는다.

공정무역은 소비자의 힘으로 시장을 민주화하는 운동이다. 먼저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온다. 한 사무처장은 "개발도상국에서 돈은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덧붙인다.

2. ESG 경영활동과 소비자 오인성 : 동물복지



http://kenews.co.kr/mobile/article.html?no=82943

동물복지 축산물 찾아가는 소비자 67% ↑

① 2023.02.22 10.25.01



더크게보기

- 한국축산데이터,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진행...동물복지 축산물 구매 이유 '동물복지' '식품안전성'
- 소비자 60% "비싸도 동물복지 축산물 구매"...동물복지 인증 영향력 향후 확대 전망

소비자 상당수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동물복지가 축산물 구입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국축산데이터가 자사 프리미엄 원헬스 축산물 마켓 '글리점퍼' 이용자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물복지 축산물을 선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7.6%가 '매우 선호한다' 또는 '선호한다'라고 답했다. '선호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굴리점퍼는 한국축산데이터의 가축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팜스플랜'으로 건강하게 기른 돼지고기 '팜스플랜미트'와 '아트리스아트', 국내 유일 전통 산 란계 토종닭으로 인증 받은 농장에서 자연 방목으로 생산한 '잘란' 등 프리미엄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물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4.2%가 '안전한 먹거리로 믿을 수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동물복지를 위해서(30.1%)', '건강을 위해서 (13.7%)'라는 응답은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그대로 동물복지 인증 선호로 이어졌다. '축산물을 구매할 때 동물복지 인증 여부는 중요한 기준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5%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8.9%의 응답자만이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동물복지 인증 여부가 소비자의 축산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향후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축산물 구매 시 동물복지 인증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81.2%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를 위해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 소비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답자 60%가 '일반 축산물 대신 동물복지 축산물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겠다'라고 답했다. '고려해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30.6%에 달했다.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에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10%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가 47.1%로 가장 많았다. 27.3%는 '5% 이하'라고 답했으며 19.4%는 '20% 이하'까지 추가로 가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3.3%는 '비용은 상관없다'라고 답했다.

2. ESG 경영활동과 소비자 오인성 : 소비자(사회적)협동조합



http://www.dhn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295352

HOME > 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 커피박 자원순환과 ESG 가치경영의 체계 구축

△ 임병동기자 │ ○ 승인 2022.11.10 10:10

년간 38만톤에 이르는 커피박이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될 시 약 13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매년 38만톤(2021기준) 넘게 버려지는 커피박을 배출, 수거, 처리, 재활용 등 일련의 자원순환과정을 배출기업, 지방자 치단체, 시민단체, 재활용 제조기업 등과 체계화 하여 선순환자원 Platform을 제시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2022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11/9~11/11)이 개최되고 있는 COEX 현장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이사장 이만재)은 커피박의 자원순환체계를 협동조합형 구축 사례를 소개하면서 커피박의 효율적 수거체계, 참여기업의 ESG경영 실천 방안, 커피박의 자원순환 제품의 포트폴리오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 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자율과 독립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 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2. ESG 경영활동과 소비자 오인성: 대체육은 친환경 제품인가? 친환경 경영활동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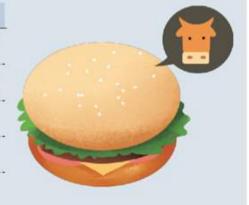
 대체육은 친환경 제품일까? 아니면 대체육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친환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먹거리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주의) 사례들

	사례	현황
GS25	'식물성 대체육 상품'이라 쓰고 쇠고기 함유	리뉴얼해 판매
CU	'채식유부김밥'에 동물성 단백질(글리신) 함유	리뉴얼해 판매
이마트24	'플랜트 튜나마요샌드위치'에 우유 함유	판매
버거킹	'0% Beef'라 쓰고 동물성 소스 사용	단종
투썸플레이스	'식물성 단백질 샌드위치'에 쇠고기, 닭고기 함유	판매



2. ESG 경영활동과 소비자 오인성 : 부당한 표시광고 요건 검토 관점

소비자오인성 판단

판례는 ... 소비자가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두60109판결)

☑ 소비자오인성을 판단하는 기준, "전체적 인상론 "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할인효과 없는 1+1행사와 오인성)을 통해,
- 소비자의 오인성을 판단기준으로서 "전체적 인상론"을 재확인
- ☑ 표시광고법의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으로 인한, 사업자의 소비자오인성 방지의무
- 표시광고법상의 소비자오인성 검토는 관련법을 준수하였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은 아님
- 물품의 표시광고를 둘러싼 외부상황으로 물품이 표시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자는 그와 같은**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에 대한 주지의무(소비자오인성 방지의무)가 있음.
-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공정위 예규 제314호. 2018.12.27. 제정) "

3.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1)

<u>이이와 적용범위</u>

사업자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방법과 해당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관련 활동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이드라인은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4호)"를 참고하고 있으나 친환경 제품과 구분됨.

☑ 친환경 경영활동 세부유형 (8가지 유형)

- 환경방침 및 환경경영의 목표 등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
- 환경 관련 인증 등의 획득에 대한 표시광고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표시광고
-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표시광고
-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에 대한 표시광고
- 원부자재 및 용 사용 절감에 대한 표시광고
-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표시광고
-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에 대한 표시광고

3.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2)

HOME > 정치 > 여의도통정

석탄발전소가 친환경? 이소영 의원, '그린워싱 금지법' 발의

음 김한주기자 ○ 승인 2023.08.22 09:45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규제대상에 석탄화력발전 등 폭넓게 포함시켜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화석연료 기업의 '가짜 친환경 홍보'를 막기 위한 "그린워싱 금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2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대상의 범위에 석탄화력발전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화석연료 발전 관련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거짓과 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 고 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제



이소명 의원 ⓒ대한뉴스

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

하지만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제조물)'에만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 생산 등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더라도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친환경 석탄발전소'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1기당 시민 40만 명과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후위기 최대 유발시설이나, 현재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한국중부발전), 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등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스스로를 '친환경 에코 발전소'라 홍보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 인허가 면제 등 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대상의 범위에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 까지 포함되도록 해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폭넓게 금지했다. 이 경우 석탄화력발전 등 '에너지 생 산'도 그린워싱 광고 규제대상이 된다. 또한,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 주범인 화석연료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불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하 며, "개정안은 소비자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진짜 친환경' 기업들을 구분할 수 있도 록 돕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훈식·김영배·김원이·송갑석·오영환·윤건영·이용우·장경태·전용기·정태호·허영 등 총 13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1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시에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5981호) on-off line 을 모 두 경비한 종합 에제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한주 기자

4. 마치면서: 소비자 권의향상을 위한 ESG 경영활동 표시광고 정책방향

- "환경분야"의 경우, 환경산업 및 환경산업기술 지원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한 규율이 가능
- 나머지 분야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율체계는?
- ESG 경영활동에 대한 표시광고는 "제품과 서비스"의 연관성이 있을 때에만 규율할 것인가?

ESG 경영활동 관련 표시광고 규율체계 모색

ESG 경영활동 관련 올바른 표시광고 방법 모색

- ESG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체계에 더하여 표시광고 방법을 연계하여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가?
- 기업(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ESG 경영활동 확산과 윤리소비의 재인식

- 소비시장에서 사업자의 정보에 대한 재평가
- 윤리적 소비가 더 나은 소비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면 소비자 교육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소비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감사합니다

THANK YOU

KOREA CONSUMER AGENCY



지속가능성 투자의 지속가능성: 현황 및 개선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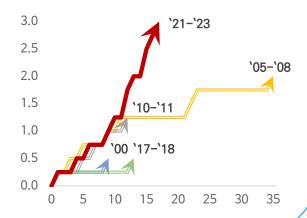
지속가능성 투자의 Going Concern

7 재무적 중요성 관점의 유용성

3 제도적 고려사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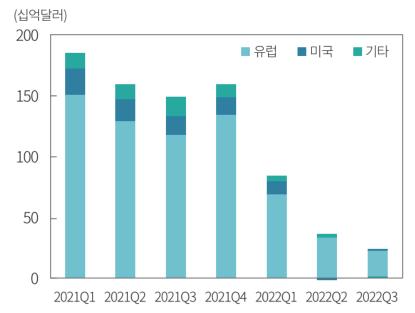
지속가능성 투자의 Going Concern



글로벌 ESG펀드시장 자금 유입의 급격한 감소

- `22년 글로벌 ESG펀드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및 신규 설정 펀드 수 감소
 - > `22년 9월 말까지 225억달러 자금 순유입: 전분기 대비 33.6% 감소
 - 미국 ·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2분기부터 순유출 기록
 - 글로벌 ESG펀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의 감소폭이 매우 큼 (홍지연 2023)

〈글로벌 ESG펀드 자금흐름〉



자료: Morningstar (2022); 홍지연 (2023)

〈유럽 ESG펀드 신규설정 현황〉



자료: Morningstar (2022); 홍지연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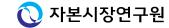
ESG 펀드의 공시 규제 강화

- EU · 미국 중심 금융상품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운용사 · 펀드 단위 공시 규제 강화
 - >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상 ESG펀드 등급별 목표:
 [제9조]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 → [제8조] 환경·사회 특성 증진 → [제6조] 기타
 - `22년 4분기 재분류된 총 419개의 SFDR 펀드 중 311개가 하향 조정(제9조 → 제8조)
 - `23년 1분기 제9조 펀드의 운용 자산 규모 1,750억 유로 감소

〈SFDR 공시 내용〉

	Article 6	Article 8	Article 9
운용사	•지속가능성 위험 통합 정책 •투자의 주요 부정적 영향(PAI) •주주활동 정책(Annex 1)	• 증진 대상 환경, 사회적 특성 • 방법론, 데이터, 스크린 기준, 지표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 •영향 평가, 측정, 관측 방법론, 데이터, 스크린 기준, 지표
투자설명서	 지속가능성 위험 통합 방법과 수익에 대한 영향력 평가 PAI 고려 방법 "해당 펀드는 EU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행위 기준을 고려 하지 않음" 	•특성 달성 방법 •채택 준거지수 존재 시 특성과 지수의 일관성, 산출 방법 •TR 6대 목표 중 증진 대상 목표 •투자액 중 텍사노미 일치 비중 (Annex 2)	• 준거지수의 일관성, 시장지수와의 차이점 • 지수 산출 방법론의 출처 • TR 6대 목표 중 대상 목표 • 투자액 중 텍사노미 일치 비중 (Annex 3)
운용보고서	• PAI 고려 정보 주기적 보고	• 특성 달성 전반 사항 • 텍사노미 일치 비중 (Annex 4)	전반적인 영향력에 관한 측정 지표 텍사노미 일치 비중 펀드의 영향력을 준거지수/시장 지수와 지표를 갖고 비교 (Annex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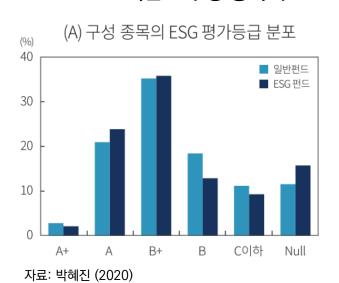
자료: 이인형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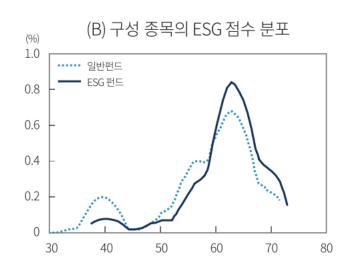


ESG 펀드의 Labeling과 실제

- ESG · 일반 펀드 간 ESG 평가등급 및 점수 상 유의한 차이 없음 (박혜진 2020)
 - > (ESG 펀드)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중 투자설명서에 ESG 요소를 고려함을 명시한 펀드
 - > (일반 펀드)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중 운용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액티브' 펀드

〈펀드 구성 종목의 ESG 등급 및 ESG 점수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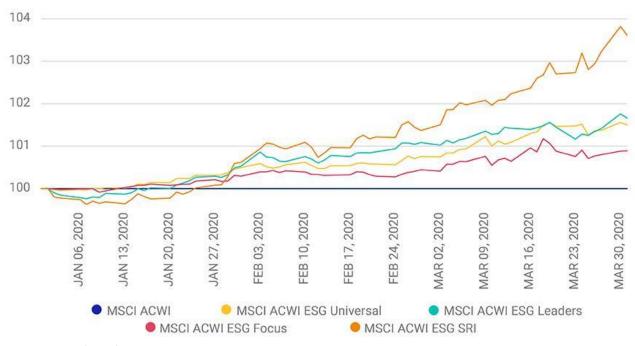




수익률 차별성에 대한 의구심

- 코로나19 국면은 기업의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지속가능경영 내재화를 촉구한 계기
 - > 실제 수익률 측면에서 대중적인 금융상품 투자자의 유인을 충족하는지는 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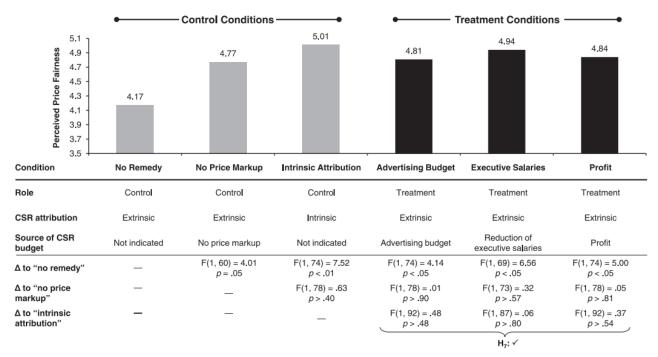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초기 ESG 지수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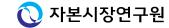
자료: MSCI (2020)

소비자의 Warm-glow 선호와 기업가치의 상반성

- 기업이 전략적인 ESG 활동 시 소비자는 가격 공정성을 의심(Habel et al. 2016)
 - › 기업이 ESG 활동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하지 않아야 소비자는 가격 공정성을 신뢰
 - ESG 활동 비용의 원천이 1)광고비, 2)경영진 급여, 3)기업의 이익인 경우, 온정(Warm-glow)에 의한 소비의사결정을 기대
 - 소비자 편익과 달리 장기 기업가치 제고와는 부(-)의 관련성



자료: Habel et al. (2016)



냉정과 온정 사이의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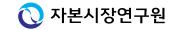
- 그린워싱 위험 특성에 따라 투자자의 Warm-glow 선호 현상이 다르게 관측 (Tatomir et al. 2023)
 - > 서비스업종과 다르게 그린워싱 위험이 높은 제조업종에서는 온정 효과의 관측이 어려움
 - 기본적으로 Warm-glow 선호 투자자는 낮은 위험조정 수익률을 수용하지만, 기업의 그린워싱을 인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높은 보상을 요구 (Dreyer et al. 2023)

탄소집약도 분위별 기업가치 변화



주 : 시장조정수익률 기준, '02년 9월 1일 투자 포트폴리오 1원의 '21년 8월 말 현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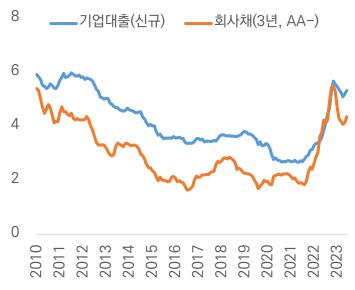
자료: DataGuide, 자본시장연구원



금리상승과 경기 하방 압력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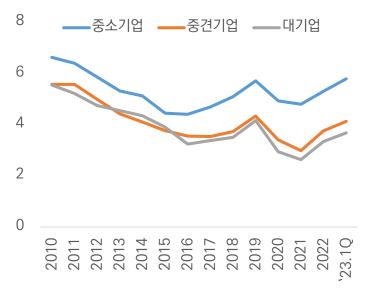
-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확대하면서 기업 내부적으로도 지속가능 투자의 동력이 저하
 - ›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글로벌 물가의 구조적 상승 압력이 지속 (Nagel 2022; 강현주 2023)
 - Ex) 탈세계화 · 탈탄소화로 인한 원자재 · 에너지 가격 상승

〈기업대출 및 회사채 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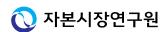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업규모별 평균차입이자율(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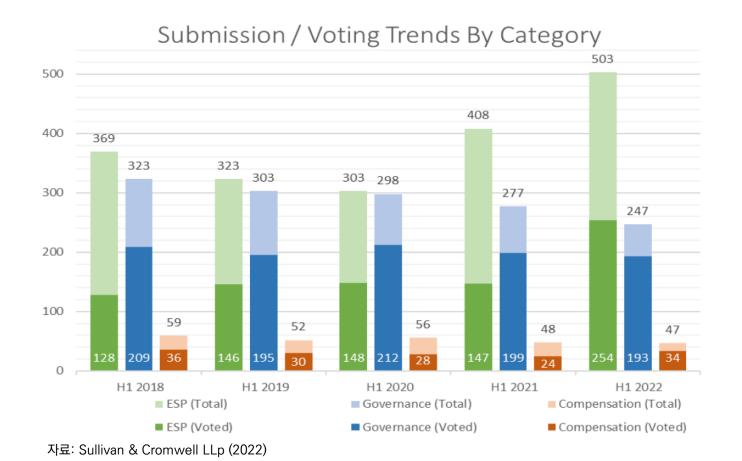


자료: Dataguide, TS2000



이해관계자 간 의견 불일치 확대

○최근 2년 간 미국 주주총회에서 환경 · 사회 · 정치(ESP) 관련 주주제안이 급증 > 규범적 ESG 활동을 반대하는 Anti-ESG 제안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불일치 증가



2

재무적 중요성 관점의 유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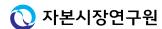


과거 ESG 성과와 기업가치 간 혼재된 실증증거

- ESG 성과와 기업가치의 관계는 당위적임에도 다수의 실증문헌은 일관되지 않은 결론을 제시(Waddock & Graves, 1997; Zhao & Murrell, 2016; 김세희 외, 2022)
 - > Good company(O), Company to be good(?)
 - 상품서비스시장이나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이 ESG 성과를 구매 혹은 투자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증거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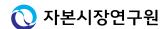
ESG 성과 개선 포트폴리오의 월평균 초과수익률

△ESG	T	3.4: 1	TT: 1	TT: 1 T
Tercile	Low	Mid	High	High-Low
4-Facto	r Model: R _{pt} -R _{ft} :	$= \alpha + \beta_1 (R_{mt} - R_{ft}) +$	$\beta_2 SMB_t + \beta_3 HML_t$	$_{t}+\beta_{4}\text{UMD}_{t}+\epsilon_{pt}$
a(%)	0.23*	-0.09	0.11	-0.12
	(1.68)	(-0.54)	(0.70)	(-0.85)
R _m - R _f	1.02***	0.96***	0.98***	-0.04
	(19.14)	(20.63)	(26.46)	(-0.80)
SMB	0.11**	0.18***	0.16***	0.05
	(2.10)	(3.92)	(2.92)	(0.92)
HML	-0.07	-0.13*	-0.07	0.00
	(-1.20)	(-1.91)	(-1.00)	(0.04)
UMD	0.00	0.01	-0.01	-0.01
	(0.01)	(0.09)	(-0.17)	(-0.13)
Adj. R ²	0.891	0.847	0.851	-0.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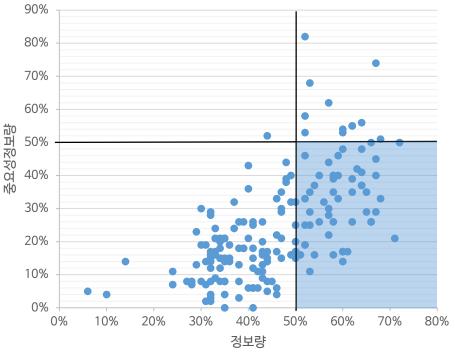
혼재된 결론의 예상 원인

- 재무성과를 견인하지 못하는 ESG 활동은 주주의 지지를 받기 어려움
 - >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한 현행 법규범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 것을 지향
 - 주주에게 분배가능한 부(예: I/S상 당기순이익)를 제고하지 못하는 활동은 제도적으로 억제
- 재무성과와 관련성이 약한 ESG 활동은 투자의사결정의 고려사항이 아님
 -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에서는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체계적 위험을 가격에 적극 적으로 반영
 -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financing)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활동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 ○시장의 평가 메커니즘에 노출된 경영진은 재무성과 지표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ESG 활동을 지속할 유인이 없음
 - › 비교가능성 · 객관성이 높은 재무성과 지표들이 비재무성과 지표들에 비해 경영자 평가의 성과지표로 더 비중있게 이용 (Ittner et al., 2003)
 - ESG 활동은 즉각적인 비용을 수반하지만 효익은 불확실



재무적 중요성 기반 공시 정보량 현황

- ESG 관련 공시 정보량이 많더라도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량(Material Disclosure: 이하 MD) 이 많은 것은 아님
 - > SASB to Bloomberg Field Mapping 이용가능 자산총계 2조 이상 상장기업 대상
 - 전체 ESG 정보량 평균 46%, 중요성 정보량 평균 24%



자료: 이인형 · 이상호 · 윤주영 (2022)

미래주식수익률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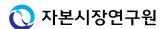
- ○(분석 개요) ESG 점수의 증분(△ESG)과 MD 점수의 증분(△MD)에 따라 구성한 3×2의 이중 정렬 포트폴리오의 향후 1년간 월평균 초과수익률 성과
- ○(분석 결과) ESG 성과의 개선이 미래 주식수익률을 견인하는 효과는 MD의 개선이 병행된 집단에서만 유의미
 - > ESG 성과의 개선 정도가 높은 집단(△ESG High)을 매수하고 낮은 집단(△ESG Low)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전략(High-Low)은 MD의 개선이 동반된 경우(△MD Pos)에만 월평균 0.982%의 양(+)의 초과수익률을 달성 (5% 유의수준)
- ○(시사점) MD의 개선이 뚜렷한 ESG 활동의 증분만이 기업의 가치창출과 연계

4-Eas	4-Factor α(%)		\triangle MD				
4-rac	ctor u(%)	Neg	Pos	Pos-Neg			
	Low	0.238	0.201	-0.037			
		(1.51)	(0.72)	(-0.09)			
	Mid	0.067	0.230	0.162			
△ESG		(0.48)	(0.83)	(0.72)			
ΔESG	High	-0.188	1.183***	1.371***			
		(-1.19)	(3.65)	(3.26)			
	High-Low	-0.426**	0.982**	1.408**			
		(-2.09)	(2.37)	(2.51)			

미래주식수익률 횡단면 회귀분석결과

- ○(분석 개요) 기업특성변수를 충분히 통제한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수준의 시계열 회 귀분석 결과가 재현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횡단면 회귀분석 수행 (Fama & MacBeth, 1973)
 - > (비모수적 검정) 더미변수를 제외한 연속형 변수-0.5에서 +0.5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
- ○(분석 결과) 모든 열에서 ESG 활동의 개선에 대한 순위정보와 MD의 개선 여부를 교차한 항(△ESG×Pos△MD)의 계수값이 유의한 양(+) (5% 혹은 1% 유의수준)
 - > 열(6) 기준 ESG 성과의 개선도가 높은 기업(△ESG=0.5)은 MD의 개선을 동반한 때 (Pos△MD=1) 월평균 0.630%의 양(+)의 초과수익률
- ○(시사점) MD의 개선이 명확한 경우 개별기업 수준에서도 ESG 성과는 기업가치 창출과 유기적으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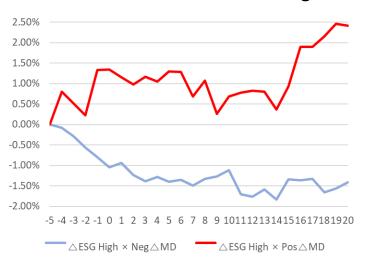
		Deper	ndent variab	ole = abRE	Γ(%)	
	(1)	(2)	(3)	(4)	(5)	(6)
$\triangle ESG$	-0.256	-0.172	-0.253	-0.218	-0.131	-0.213
	(-1.47)	(-0.96)	(-1.36)	(-1.27)	(-0.77)	(-1.20)
Pos△MD	0.041	0.175	0.133	0.036	0.178	0.133
	(0.21)	(0.89)	(0.69)	(0.18)	(0.85)	(0.66)
$\triangle \operatorname{ESG} \times \operatorname{Pos} \triangle \operatorname{MD}$	1.279***	1.123**	1.315***	1.186**	1.024**	1.206**
	(2.87)	(2.54)	(2.96)	(2.54)	(2.21)	(2.57)
Test: Pos△MD+	1.320***	1.298***	1.448***	1.222**	1.202**	1.339**
$\triangle ESG \times Pos \triangle MD =$	(2.70)	(2.68)	(2.99)	(2.39)	(2.37)	(2.62)
Industry F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Estimator	OLS	OLS	OLS	WLS	WLS	WLS
Avg. R2	0.176	0.222	0.242	0.156	0.190	0.211
Firm-month Obs.	24,681	24,681	24,681	24,681	24,681	24,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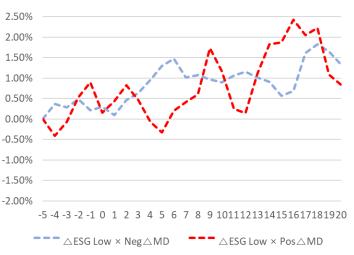
주가표류현상(post-announcement drift) 분석결과

- ○(분석 개요) ESG 점수의 공표일(t=0) 전 -5거래일, +20거래일 기간에 대해 누적초 과수익률(CAR)을 산출하여 투자자들의 지연반응 행태가 존재하는지를 판별
- (분석 결과) ESG 점수 개선 상위 집단(△ESG High)의 경우, MD의 개선을 동반하였을 때(Pos△MD)는 CAR이 관측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승한 반면, MD의 개선을 동반하지 않았을 때(Neg△MD)는 일정하게 하락
 - > ESG 점수 개선 하위 집단(△ESG Low)의 CAR 경로는 일정한 패턴 식별불가
- ○(시사점)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과소반응 가능성 확인

ESG 점수 개선 상위 집단(△ESG Hi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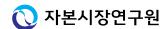
ESG 점수 개선 하위 집단(△ESG Low)



주가표류현상 횡단면 회귀분석결과

- ○(분석 개요) ESG 점수 공표 후 주가표류현상이 개별기업의 특성 변수를 충분히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 (Fama & MacBeth, 1973)
 - > (비모수적 검정) 더미변수를 제외한 연속형 변수-0.5에서 +0.5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
- ○(분석 결과) 모든 열에서 ESG 활동의 개선에 대한 순위정보와 MD의 개선 여부를 교차한 항(△ESG×Pos△MD)의 계수값이 유의한 양(+) (10%, 5% 혹은 1% 유의수준)
- (시사점) 시장은 ESG 성과의 개선 정보를 적시에 이해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MD 의 개선 여부에 따라 과소반응이 심화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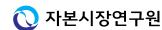
	Dependent variable = CAR(%)					
	(1)	(2)	(3)	(4)	(5)	(6)
	[0, +5]	[0, +10]	[0, +20]	[0, +5]	[0, +10]	[0, +20]
△ESG	-1.271***	-1.704***	-1.141*	-1.350***	-1.838***	-1.316*
	(-5.91)	(-5.54)	(-2.09)	(-6.27)	(-6.00)	(-2.10)
$Pos \triangle MD$	0.118	-0.327	0.255	0.069	-0.392	0.230
	(0.30)	(-1.19)	(0.59)	(0.18)	(-1.41)	(0.53)
$\triangle ESG {\times} Pos \triangle MD$	1.266**	4.028***	2.963*	1.384**	4.286***	2.923*
	(2.88)	(6.27)	(2.32)	(3.14)	(6.35)	(2.13)
Test: Pos△MD+	1.384*	3.701***	3.218**	1.453**	3.894***	3.153*
$\triangle ESG \times Pos \triangle MD =$	(2.33)	(5.29)	(2.39)	(2.48)	(5.33)	(2.19)
Industry F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Estimator	OLS	OLS	OLS	WLS	WLS	WLS
Avg. R^2	0.187	0.202	0.209	0.182	0.199	0.207
Firm-year Obs.	2,138	2,138	2,138	2,138	2,138	2,138



ESG 활동의 지속성 회귀분석결과

- ○(분석 개요)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활동이 더 지속적인지를 검증
- (분석 결과) ESG 성과 미개선 표본의 열(4) 결과 제외한 모든 열에서 ESG 활동 수 준과 MD 개선 여부의 교차항(logESG×Pos△MD) 계수값이 유의한 양(+) (5% 유의수준)
- (시사점)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일수록 ESG 활동의 지속성이 더 높게 나타나, 재무정보의 지속성을 가치관련성의 핵심 속성으로 파악한 기존 연구와 일관됨 (Easton and Harris 1991; Ali and Zarowin 1992)

	(1)	(2)	(3)	(4)
Dependent variable =		logES	G(t+1)	
Sample =	Full s	ample	$\Delta \text{ESG} \rangle 0$	ΔESG≤0
logESG	0.725***	0.717***	0.770***	0.732***
	(35.24)	(34.84)	(16.50)	(25.64)
Pos△MD	-0.135	-0.128	-0.294*	-0.061
	(-1.54)	(-1.48)	(-1.74)	(-0.59)
logESG×Pos△MD	0.132**	0.127**	0.248**	0.069
	(2.08)	(2.04)	(2.10)	(0.86)
Observations	1,833	1,833	807	1,026
Adjusted R ²	0.572	0.574	0.571	0.571
Year/Industry FE	Yes	Yes	Yes	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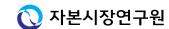


주가 정보성 회귀분석 결과

- ○(분석 개요)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정보가 사적(private) 정보로서 유용한지를 검증
- (분석 결과) MD와 주가 동조화(SYNC) 변수 간 계수값이 유의한 음(-) (5% 유의수준)
- ○(시사점)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정보는 기업 고유의 가치변동과 깊게 연계
 - > 비윤리적 · 탈법적 문제의 공론화 이후 이를 세탁하기 위한 사후적 공시확대는 비유의적

변수	예측부호		종속변수	:: SYNC _t	
인구	에극구오	(1)	(2)	(3)	(4)
$\triangle MD_{t+1}$					-0.281
					(-0.85)
MD_{t}	-	-0.505**	-0.557**		
		(-2.02)	(-2.13)		
$\triangle MD_t$				-0.557**	-0.825**
				(-2.13)	(-2.50)
$\mathrm{MD}_{ ext{t-1}}$			-0.002	-0.559*	-0.884**
			(-0.01)	(-1.82)	(-2.37)
연도 고정회	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섹터 고정호	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업 고정호	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2,932	2,612	2,612	2,308
수정 설명	력	0.694	0.737	0.737	0.755

자료: 이인형 · 이상호 · 윤주영 (2022)



3 제도적 고려사항

탈세계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와 기업 지속가능성

- 우리나라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ESG 규제 및 공시의무 동시 확대
 - > 기후변화 대응,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가속화로 ESG 요소 전반의 위험관리가 필요
 - EU 탄소국경 조정제 및 공급망 실사 지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ESG 규율 강화는 국내 기업에도 광범위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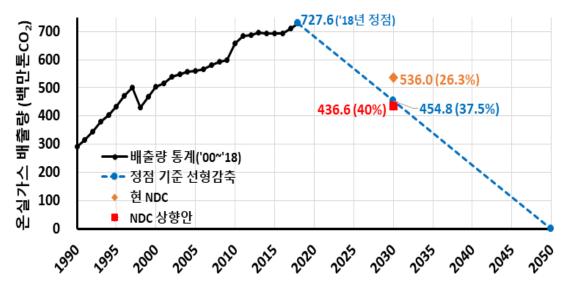
ESG 규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규율 내용	국내 영향
EU CSRD	규율 대상 ■ 일정 규모 이상 EU 상장·비상장 기업 ('25~, 단계적 적용) ■ 對EU 매출액 일정 규모 이상 또는 EU에 일정 규모 이 상 종속기업을 보유한 非EU 기업('29~)	■ [직접] EU 상장 국내 기업, 국내 기업의 EU 해외 법인 ■ [직접] EU에 수출하거나 EU에 종속기업ㆍ지점을 둔 국내 기업
	가치사슬내 활동 공시 ■ 가치사슬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3),노동자 현황 등을 공시	■ [간접] 규율 대상 기업과 공급·협력 관계인 국내 기업
美 SEC 기후공시	규율 대상 ■ 상장기업('24~, 단계적 적용)	■ [직접] 美 상장 국내 기업
기우등시 의무화 (안)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 규율 대상은 가치사슬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을 공시('25~, 단계적 적용)	■ [간접] 규율 대상 기업과 공급 · 협력 관계인 국내 기업
EU 공급망	규율 대상 ■ 일정 규모 이상 EU 상장ㆍ비상장 기업, 對EU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非EU 기업	■ [직접] EU 상장 국내 기업, 국내 기업의 EU 해외 법인, EU에 수출하는 기업
실사지침 (안)	공급망 실사의무 부과 ■ 규율 대상은 공급망에 걸쳐 인권·환경 실사를 진행하 고 실사 내용을 공개	■ [간접] 규율 대상 기업과 공급·협력 관계인 국내 기업

탈탄소화: 법제화된 감축의무와 기업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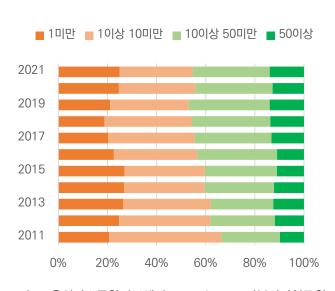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NDC): 연평균 4.17% 감축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과거 배출정점(18)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는 안
 - > 주요 선진국의 목표 대비 매우 높은 수준
 - (유럽연합) 1.98%, (미국) 2.81%, (영국) 2.81%, (일본) 3.56%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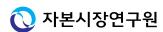


자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관계부처 합동, 2021. 10. 18

상장기업 탄소보상배율 구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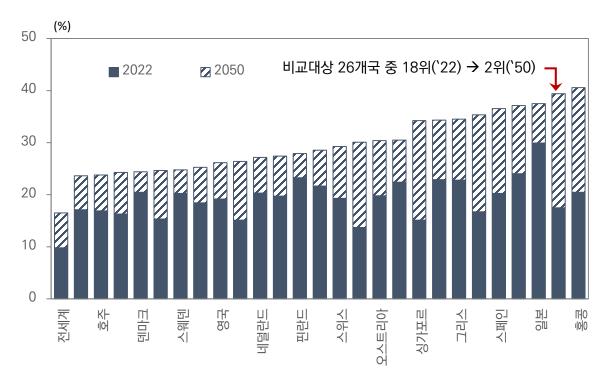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DataGuide, 자본시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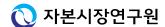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 급속한 고령화와 기업 지속가능성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비중이 예상되는 2050년

- > 65세 이상 인구: 17.5%(`22) → 39.4%(`50)
- > 80세 이상 인구: 4.3%(`22) → 15.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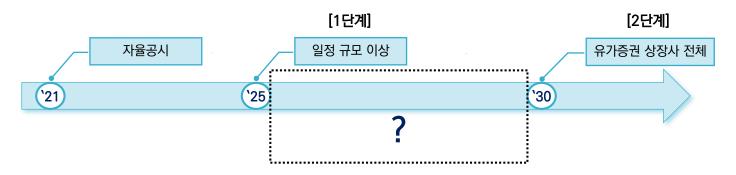
자료: 강현주 (2023)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 거시경제 추세에 미치는 영향"



기업공시 중심의 ESG 공시제도 개편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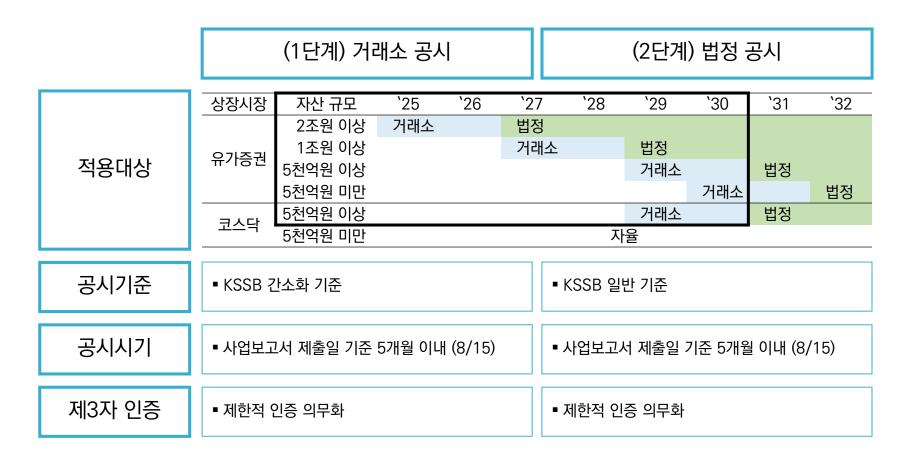
- ○국제 정합성 · 이해관계자 수요를 고려한 기존 계획의 확대 · 구체화
 - > EU·美 등 해외 주요국 ESG 공시제도, ISSB 기준과의 일관성
 - >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도 높은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의 제공
- 기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행비용과 편익의 균형적 고려
 - > 특히, 소규모 기업의 공시 역량을 감안하여 과도한 부담 유발을 최소화
- 공시 대상기업, 공시기준, 공시시기, 제3자 인증 등 필수 제반요소의 구체화 계획

현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2단계 의무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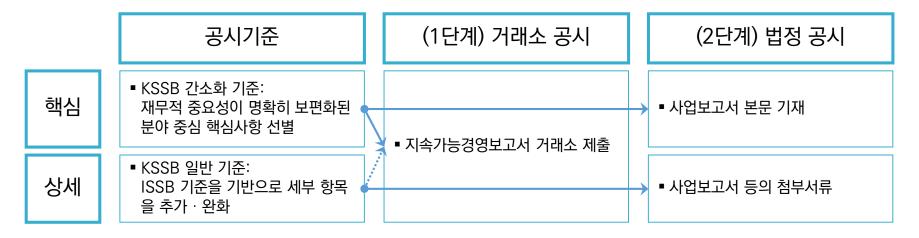
의무화 일정의 세분화 및 법정 공시로의 전환 계획

-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대상** 및 **수준**을 순차적으로 **확대 · 고도화**
 - > (1단계) 거래소 공시 → 2년 후 → (2단계) 법정 공시



재무적 중요성 기반 공시기준 확립 계획

- ○(거래소 공시) `25 거래소 공시 단계부터 적용할 KSSB **간소화 기준**을 마련
 - > 핵심 의무 공시항목을 선별하여 법정 공시 단계에서의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과 연계
 - (의무) 규제 확대로 재무적 중요성이 보편화된 분야(예: 기후 등) 및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 선별
 - (자율)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다양한 국제 기준의 선택을 허용
- ○(법정 공시) `27 법정 공시 단계부터 적용할 KSSB **일반 기준**을 마련
 - > ISSB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추가 및 완화
 - (추가) 국내법상 공시 항목, SASB 산업기반 공시 항목 중 재무적 중요성이 높은 지표를 포함
 - (완화) 이행비용과 편익의 균형적 고려를 통해 ISSB 기준의 일부 요구사항을 완화 혹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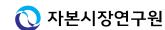
금융상품 공시 체계에 대한 논의는 더딘 상황

- 펀드 명칭과 투자설명서에서 ESG 관련 내용을 표시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 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이인형 2022)
 - > 비례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
 - > 지속가능성 분석 역량에 대한 설명 (전문인력 및 데이터 보유, 외부기관 의존 여부 등)
 - > 펀드가 추구하는 ESG 목표달성을 위한 준거지수 채택 및 이행과정의 충실한 설명 등

〈투자유형별 국내 ESG 펀드의 공시 현황〉

항목	분류	개수	비고
	네거티브 스크리닝	24	– 죄악펀드, 등급 하위 펀드 제외
	포지티브 스크리닝	15	– 등급 상위 펀드에 투자
투자	통합(ESG≦재무)	34	– 재무분석이 ESG 고려와 동등하거나 더 크게 작용
유형	통합(ESG>재무)	4	– ESG 요소를 기준으로 편출입 결정
	ETF	13	– ESG 요소를 기준으로 편출입 결정
	주주활동	6	– ESG 요소를 주제로 주주활동
	외부 서비스	41	– 국내외 ESG 평가사 활용
분석	내부 분석	11	– 자체 ESG 평가
방법	언급 없음	6	– 외부, 내부 활용 언급 없음
	방법론 설명	22	– 등급평가 방법, 포트폴리오 편출입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설명
T-1	KOSPI	15	– KRX KOSPI 지수
준거 지수	ESG 특화	33	– KRX, MSCI, S&P 등
ΛIT	없음	5	– 언급 없음

자료: 이인형 (2022)



장기적으로 금융상품 규제 · 공시 체계의 확립이 필요

- EU는 상위법 체계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금융 규제 · 공시 체계를 수립
 - >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 Taxonomy Regulation → SFDR ← CSRD
- SEC는 투자자 선호에 합당한 펀드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형별 정형화한 공시안 마련
 - › (ESG 중점 펀드) ESG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하거나 주된 기준으로 삼는 펀드
 - > (ESG 통합 펀드) ESG 요소를 전통적 투자 판단 요소와 동시에 고려하는 펀드

〈EU 지속가능금융 규제 · 공시 체계〉

European Green Deal 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 Taxonomy Regulation **SFDR** ► • Risk • ESG 정보공시 • 지속가능경제행위 Article 6 • 텍사노미 일치비율 • 6대 환경목표 · Min Safety Article 8 Article 9 Benchmark Regulation • 증진(Promote) • 목표(Objective) • 6대 환경목표 Article 8 • 목표달성 경과 보고 • 준거지수 설명 • 준거지수 설명

MIFID II

• 지속가능성 선호 적격성 평가 후 판매

〈SEC의 ESG 중점 펀드 전략 개요표〉

항목	내용			
	전략과 초점이 되는 중심 ESG 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다음 중 채택 전략을 선택하여 표시:			
	□ 지수 추종			
펀드의 ESG	□ 편입 스크리닝(inclusionary screen)			
전략 개요	□ 편출 스크리닝(exclusionary screen)			
한국 제표	□ 구체적 임팩트 모색			
	☐ 대리투표(proxy voting)			
	□ 주주활동(engagement)			
	□ 기타			
ESG 요소를	스크리닝의 기준이 되는 ESG 요소에 대한 설명, 스크리닝 예외 존재			
투자의사결정	시 이유 설명, 외부 ESG 평가 기관의 평가, 점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과정에 반영하는	설명, 내부 방법론 의존 시 해당 방법론 설명, 추종하는 지수명과 지수			
방법	산출 시 적용하는 ESG 방법론 설명 등			
대리투표 방안과	대리투표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ESG 사안에 대하여 현재 또는 계획			
주주활동에 관한	고 있는 주주활동을 설명, 대리투표 이전에 경영진과의 회의 시 달성히			
설명	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설명 등			

자료: 이인형 (2022)

CSRD

